

새로 나온 시집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지치지 않을까

김진 지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전공한 김진 시인의 첫번째 시집. 독일 유학 시절에 써 두었던 시들을 모은 이 시집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주조음으로 깔려 있다.

(326-0091)

시인사/B6/154면/4000원

마당에는 은빛 꽃이 핀다

정진홍 지음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의 첫번째 시집. 평생 종교현상을 탐구해온 저자가 시를 꿈꾸면서 조금씩 써놓은 작품들을 묶었다. 이 시집에는 '그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과 사별한 후에 갖게 된 삶과 죽음의 쓸쓸한 심회가 기본적인 선율로 흐르고 있다. (3141-0195)

강/B6변형/184면/5000원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

오봉옥 지음

80년대 '민족해방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오봉옥의 세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서는 변혁의 현장에서 한결음 물러나 자기성찰의 깊은 서정을 걸어올린다. 서사에 매달렸던 지난 시집과는 달리 서정과 노래시의 부활이 눈에 띈다. (322-2164)

실천문학사/B6/120면/4500원

그래도 나는 약기가 될래

김민홍 지음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김민홍 시인의 두번째 시집. 언어소통이 두절된 우리 시대의 병리를 비판한 〈그래도 이 도시를〉, 일인칭 화자의 독백적 진술로 '관념의 자유연상'을 보여주는 〈그러면 어때〉 등 소외와 분리, 좌절과 절망의 내면풍경을 독백적 문체를 통해 그리고 있다. (715-4507)

미래문화사/A5신/230면/4500원

'97 현장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시

김춘수 외 지음

이승훈·정과리·남진우 등 현장비평가들이 1997년에 발표되었던 좋은 시를 모으고 짙막한 해설을 붙였다. 김춘수·신경림 등 중견시인부터 박형준·윤의섭 등 신예시인에 이르기까지 현대시의 폭과 깊이를 더해온

시와 시인들을 만날 수 있다. (3472-8151)

현대문학/A5신/254면/5500원

지금도 그 별은 눈뜨는가

박영근 지음

《반시》로 등단한 박영근 시인의 네번째 시집. 분단체제와 노동자 문제를 핵심 화두로 삼아온 시인은 하이테크 시대에도 여전히 잊혀져가고 소외당하는 이 땅과 민중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718-0543)

창작과비평사/B6/124면/4000원

이슬의 탄생

하연승 지음

1950년대에 시동인지 《맥향》을 통해 시단에 나온 재야시인 하연승의 처녀시집. 20대 초 등단 당시부터 균형잡힌 시들을 꾸준히 발표해온 하연승 시인은 이 시집에서 감각이 드러나면서도 소재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절제된 안목을 보여준다. (716-0511)

예문관/B6변형/128면/6000원

슬픈 영혼의 아리아

이경 지음

신예 록 가수 김경호가 노래한 〈슬픈 영혼의 아리아〉의 작사자 이경의 감성시집. 만날 무렵부터 끝날 무렵까지 연속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시집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린 러브 스토리를 19개의 테마로 이어간다. (3431-8701)

무당미디어/A5신/176면/5000원

새벽의 차이코프스키

문병란 지음

《땅의 연가》의 시인 문병란의 스무번째 신작시집. 새벽에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혼자 들으면서 산다는 일의 고통을 노래한 〈새벽의 차이코프스키〉, 죽음을 숙명의 동반자로 깨닫는 〈죽음에게〉 등 삶과 세상에 대한 원숙한 통찰이 가득하다. (531-5641)

계몽사/A5신/216면/6000원

눈 먼 말이 들 때

진명주 외 지음

진명주, 강미정, 성수자 등 부산, 경남 지역 '평행시' 동인들의 네번째 동인지집. 여성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유의 세계를 섬세한 언어로 그려온 '평행시' 동인들은



이번 시집에서도 세계와 사물의 객관적인 시화를 지향한다. (051-246-3436)

빛남/B6/116면/4000원

처음 본 바다는 푸른 빛이 아니다

최부식 외 지음

부식·채상근·조현명 등 포항지역 젊은 시인들의 사화집. 이 시집에는 바다와 자연의 이미지, 모순적 삶에 대한 자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으려는 낙관적 전망 등이 담겨 있다. (0565-73-7730)

포항문학사/B6/120면/3500원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문충성 지음

제주도를 평생의 시적 대상으로 삼아온 문충성 시인의 아홉번째 시집. 이 시집에는 가파른 50고개를 넘은 시인으로서 제주도의 슬픈 역사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인 자신의 절망과 슬픔이 넘실거린다. (338-7224)

문학과학사/B6/114면/4000원

고요한 입술

송종규 지음

《심상》을 통해 문단에 나온 송종규 시인의 두번째 시집. 시인은 말로써 말해줄 수 없고, 소통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탐구한다.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515-2000)

민음사/B6/130면/4000원

그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이정하 지음

시집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로 투명한 감수성을 일깨운 이정하 시인의 세번째 시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망과 행복을 따뜻한 언어로 담았다. (362-4458)

푸른숲/B6/104면/4000원

조용한 푸른 하늘

이시영 지음

중견 시인 이시영의 신작시 모음. 이 시집은 이미지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맑은 서정과 잘 다듬은 언어의 절로 삶의 여백과 순간적인 긴장들로 충만한 언어세계를 보여준다. (332-1526)

솔/B6/96면/4000원

게임 테이블

윤호 지음

《문학동네》로 등단한 윤호 시인의 첫번째 시집. 전통적인 서정시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집에는 어두운 유년의 가족사를 밑그림으로 하여 '기억의 부재'나 '욕망의 무화'를 꿈꾼다. (765-6510)

문학동네/B6/120면/4000원

내 몸이 동굴이다

박기동 지음

《심상》으로 등단한 박기동 시인의 두번째 시집. 시인은 '여기'와 '거기'를 분리시키는 낭만주의자로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승의지를 불태우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포복의 삶'도 수락하는 성숙함도 갖추고 있다. (577-2341)
세계사/B6/116면/4000원

길에 쌓이는 시간들

이인평 지음

《조선문학》신인상으로 등단한 이인평 시인의 첫번째 시집. 시인은 길의 한복판, 꿈으로 향하는 길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색을 통해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애정 깊은 눈으로 관찰한다. (725-6973)

조선문학사/B6/136면/4000원

길 떠나는 상처

강신용 외 지음

강신용·권선옥·김백경 등 '허리와 어깨' 동인들의 세번째 동인지집. 모든 것이 물화되어가는 시대에 희망의 언어를 잃지 않는 젊은 시인들의 삶과 언어에 대한 고뇌를 엿볼 수 있다. (221-9668)

문경출판사/B6/140면/4000원

너, 없음으로

오세영 지음

우리 시대 대표적 서정시인 오세영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시선집. 이 시집에는 사랑은 이름답고 선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를 위한 그리움의 화신일 따름이라는 사랑의 전언이 서정적 언어들 속에 녹아 있다. (392-2588)

좋은날/B6/124면/4000원

아름다운 불륜

안도현 외 지음

안도현·나희덕·이윤학·박형준 등 '시힘' 동인들의 열번째 동인지집.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와 생명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문명사회에 가려진 주변성, 외곽성의 가치를 정통적 서정시로 노래하는 시들이 수록되었다. (312-5364)

명진출판/B6/148면/4000원

하늘 한번 참말로 맑게 반짝이더라

양병호 지음

《시문학》으로 등단한 양병호 시인의 두번째 시집. <용담일기>·<편지> 연작시에서 시

적 소재가 따로 없이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시심을 발동하여 시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64-1972)

신제림/B6/108면/4500원

숲·일기

조병기 지음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조병기 시인의 세번째 시집. 이 시집에는 고향상실, 그리움·연민·떠남·안타까움 등 우리 시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시조의 울격을 다시 다듬어 한국적인 정서를 이끌어내고 있다. (722-4588)

토방/B6/128면/4000원

어느 외톨이 구름의 노래

정영태 지음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한 정영태 시인의 시선집. 이웃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 시선집은 초기의 비판적 모더니즘에서 후기의 리얼리즘으로의 변모과정을 담고 있다. (980-6382)

민지사/A5신/246면/7000원

두류산에서 낙동강까지

박태일 엮음

1920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경남지역 시인 200명의 시를 가려뽑았다. 자유시와 시조, 그리고 아동시를 아울렀고 시인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 지역문학으로서 가치 있는 작품 등을 모았다. (0551-43-2330)

경남대출판부/A5신/504면/13,000원

행복을 파는 가게

황금찬 지음

원로 시인 황금찬의 27번째 시집. 삶 그 자체를 행복과 동일시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행복으로 본다. 시와 생활과 믿음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선이 단아한 시어들 속에 빛난다. (591-8267)

답게/B6/120면/4000원

나무는 나무끼리 서로 사랑하며 산다

김봉석 지음

《아동문학평론》에 동시가 당선되어 등단한 김봉석 시인의 세번째 동시집. 자연에 대한 사랑,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일상과 애정 등을 쉽고 아름다운 언어로 새겨놓아

어린이들에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준다. (856-0462)

천재교육/A5변형/92면/5000원

종이겨울

최수호 지음

《문학정신》으로 등단한 최수호 시인의 시선집.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 선계와 속세 사이의 거리에서 벌이는 모험, 끊임없는 이상으로의 동경, 존재에 대한 물음 등이 서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733-6672)

우리문학사/A5변형/122면/15,000원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지음

《조선일보》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재진 시인의 세번째 시집. 사랑에 대한 갈망과 실연의 아픔 등이 육화되어 있는 이 시집은 사랑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365-0070)

시가 있는 마을/B6변형/128면/5000원

마스터 키

고명수 지음

《현대시》로 등단한 고명수 시인의 첫번째 시집.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보임과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사회하는 성실성을 보여준다. (764-5057)

문학아카데미/B6/114면/4500원

주인 없는 망치

윤성도 지음

《시문학》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윤성도 시인의 두번째 시집. 여행시·음악시·종교시 등과 <현대시에 관한 8개의 단상> 등의 산문이 수록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물들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굴하고 있다. (053-742-3304)

일봉/A5신/186면/5000원

80소년 떠돌이의 시

서정주 지음

미당 서정주의 15번째 시집. 《늙은 떠돌이의 시》 이후 쓴 시들을 묶은 이 시집에서 미당은 이야기체와 산문체의 문장을 통해 소년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고 현재적 삶에 대한 달관과 여유로움을 내보인다. (736-8320)

시와시학사/B6변형/136면/7000원

무의자시집

진각국가 핵심 지음

고려 무신집권기의 선승 진각국사 핵심의 선시를 초역했다(유영봉 옮김). 선시계열에 속하는 작품. 한 사람의 승려이자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서정성 넘치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733-8151)

을유문화사/A5신/468면/12,000원

세계 30대 시인선

에메 세제르 외 지음

《시와 반시》 창간 5주년 기념시집(번역수 외 옮김). 에메 세제르, 옥타비오 파스, 셰이머스 히니 등 현존하는 세계 30대 시인들의 작품세계를 외국문학 전공자와 문학평론가들이 해설하고 주요 시들을 우리말로 옮겼다. (622-0377)

시와반시사/A5신/396면/8000원

사랑의 슬픔

마광수 지음

《가자, 장미여관으로》 이후 8년만에 펴낸 시인 마광수의 신작시집. 우리 시대의 성과 사랑에 대한 위선에 도전해온 마광수는 이번 시집에서도 사랑과 성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 사랑이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우울한 현실 등을 정직한 언어로 그려낸다. (326-1600)

해냄/A5신/192면/6000원

꿈꾸는 도요새를 찾아서

김하늬 외 지음

김하늬·노유섭·이학영 등 '녹색시' 동인들의 세번째 동인지집. 억압과 폭력이 없는 사회, 못가졌어도 부끄럽거나 천해지지 않는 사회, 병든 자도 고마운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동인들의 초록세상에 대한 간결한 염원이 담겨 있다. (272-5231)

정금/A5변형/138면/4000원